

인도 신용등급전망 하락배경과 전망

- 지난 4월25일 Standard&Poor's(S&P)는 인도의 신용등급전망(credit rating outlook)을 안정적(stable)에서 부정적(negative)로 하락시킴.
 - 인도의 국가신용등급(Long term rating)은 여전히 BBB-를 유지 하고 있으나, 이는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임.¹⁾
 - S&P 는 만약 (단기)대외포지션²⁾의 악화, 성장전망 퇴색, 정치 불안정에 따른 재정개혁 지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적어도 1/3 이상이라고 경고함.
 - 4월 27일 IMF도 2012년도 인도성장 전망을 7%에서 6.9%로 하향 조정함.
- 이번 신용등급전망 하락은 투자율 및 경제성장률의 감소, 재정적자의 확대가 지속된 것에 기인해 보임.

표 1. 인도 GDP 성장률(전년동기대비)

단위: %.

	annual	Q1	Q2	Q3	Q4
2009	9.1	6.3	8.6	7.3	9.4
2010	8.8	8.8	8.9	8.4	7.8
2011	6.9	7.7	6.9	6.1(E)	

자료: RBI

표 2. 인도 투자증가율(전년동기대비)

단위: %

	Q1	Q2	Q3	Q4
2010	8.8	6.9	11.1	0.4
2011	4.9	-4.0	-1.2	

자료: RBI

그림 1. 인도 중앙정부 재정적자·부채 추이



자료: Citi Group

- 고유가와 높이 치솟는 국제 금값 등이 경상수지 또한 악화시켜 2011/12 회계연도 (2011.04~2012.03)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%로 전망됨. 이는 전년도 2.6% 에

1) 타 신용평가사를 보면 Moody's는 Baa3, Fitch는 BBB-를 주고 있으나 이 또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임.
 2) 대외단기포지션(short-term external position)은 외국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채권과 채무의 차액을 말하며 대외신용의 평가 자료로 사용됨. 여기에는 외화 준비금(reserve requirement in foreign currencies), 정부의 단기적 대외 채권·채무, 은행의 외국에 대한 채권·채무가 포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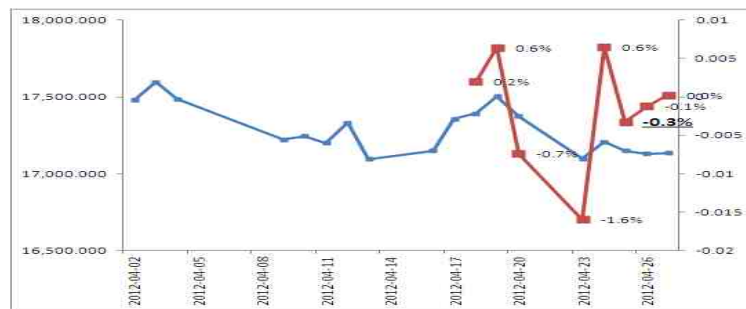
비해 적자폭이 매우 확대된 것임.

■ 향후 인도경제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.

- 인도 BSE(Bombay Stock Exchange)의 대표지수인 Sensex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의 하락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.

○ Sensex 지수는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한 4월25일 0.3% 감소에 그침.

그림 2. Sensex Index 추이



자료: CEIC

- 골드만삭스는 3월 인도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인도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등 투자 수요는 꾸준하다고 전망함.
- 지난 4월17일 인도중앙은행(RBI)은 기준금리(repo rate)를 8.5%에서 8%로 0.5%p 인하하였음.
 -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3.75%를 인상했던 추이가 반전된 것으로 기업의 투자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.
 - 이번 금리인하에 앞서 RBI는 올해 지급준비율(cash reserve ratio)을 1월 0.5%p, 3월 0.75%p 두 차례 인하하였음(현재 4.75%).
-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는 최근 물가상승압력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 외부시차(outside lag)³⁾의 문제가 있으나 경기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.
- Wall Street Journal은 S&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.

〈자료: Chicago Tribune, Wall Street Journal, The Financial Express, 네이버 백과사전, CEIC, RBI 등〉
(이웅 부연구위원)

3) 시행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으로 금융정책은 외부시차가 긴 편임.